

# 고성지역 신임 단체장 선출 잇따라 ... 지역봉사 앞장 한목소리

## “소통과 화합 바탕 참된 봉사단체로”

임기복 고성군 자율방범 연합대장

“대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각종 축제에 적극 참여해 참된 봉사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성면 천진 출신으로 토성방범대장을 역임한 임기복씨(59세, 사진)가 지난 13일 오후 6시 간성읍사무소에서 열린 고성군 자율방범연합대 정기총회에서 신임 연합대장에 만장일치 추대됐다. 임기는 2년이며, 이·취임식은 2월말 개최할 계획이다.

고성군 자율방범연합대는 5개 읍면별로 1개씩 구성됐으며, 간성읍의 경우 수동방범대가 별도로 있어 전체 6개의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다.

활동 인원은 남녀 230여명으로 6개의 방범초소와 순찰차량 6대를 운영하며 하루 5~6명이 매일 청소년 선도와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회장은 천진 출신으로 천진초교 30회 동창회장과 천진초교 총동문회 운영부회장, 천진리 향우회장, 고성로타리클럽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방법대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4년 토성 방범대원으로 방법대와 인연을 맺은 뒤 2009년부터 토성 방범대장과 고성군 연합대 사무국장을 겸직해 왔었다.

최광호 기자

## “친목과 단합으로 조직 활성화 최선”

고성군 재향군인회 최대수 회장

“국가안보의 문제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지켜야죠.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은 물론이고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고성군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서 제 28대 신임 회장으로 최대수 이사(61세, 사진)가 선출됐다. 임기는 3년.

고성군 재향군인회는 현재 4천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60여년간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지원을 하고 있다.

신임 회장은 육군 대위로 15년의 군 생활을 마감하고, 예비군 현내면대장으로 25년 근무하는 등 40년간 군에 몸을 담았다.

기독교인으로 27년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최회장은 평소 침착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일을 처리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최회장은 “앞으로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재원확충



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최회장은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가족은 부인 도영숙씨(53세)와 1남 2녀를 두고 있다.

원광연 기자

## “누구나 운동’으로 공공장소 자전거 비치”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협의회 김동집 회장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협의회 제 5대 신임 회장에 김동집 거광전력공사 대표(51세, 사진)가 추대됐다. 임기는 2년.

신임 김동집 회장은 19년 동안 고성지구협의회 활동을 하며, 봉사활동 현장에 항상 먼저 달려가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순수 봉사정신의 꽃을 피워온 고성지구협의회 회원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180명의 회원이 한 달에 1만원의 자비를 털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대 회장님들과 회원들의 헌신적이며 자발적인 봉사정신을 이어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장은 남다른 집념의 소유자로 28만원으로 독립해 전기관련분야에서 25년간 종사하며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현재 거광전력공사, 금강산호전력공사, 우리농기계 등의 대표를 맡고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김 회장은 임기동안 획기적인 그린에너지 운동을 통한 에너지 절감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쳐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명 ‘누구나 운동’으로 폐자전거, 분실자전거 등을 회원들과 수리한 후 표식을 만들어 공공장소의 자전거 거치대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자전거를 사용한 후 제 위치에 놓게 하여 환경오염 감소와 주민의식고취 함양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사에 적극적이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회장은 제 2대 금강산 적십자봉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고성군 주민협의회 감사 등을 맡고 있다. 가족은 부인 장선미씨와 2남.

원광연 기자

##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성군 축구협회·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서인호 회장

“축구 동호인들과 화합하는 가운데 건 강하고 즐길 수 있는 축구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3개팀 800여명의 동호인으로 구성된 고성군 축구연합회 신임 회장에 수석부회장인 서인호씨(58세, 사진)가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며, 오는 2월 2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장은 축구협회장도 겸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서인호 회장은 현재 거진읍 토요축구회에서 30여년간 몸을 담고 있으며, 축구사랑과 발전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서회장은 개인적인 축구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축구 동호인을 위한 경기장 시설 확충 등에 세심한 관심을 보이며 축구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학도로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는 등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노력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서회장은 거진중고 총동문회장과 화진 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거진읍변영회 감사를 맡고 있다. 직장은 거진농협(현내지점)이다.



서회장은 “고성군이 지자체 중에서도 축구장 시설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인데 불구하고 대회 유치면에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고성군과 협력해 전국 대회와 강원도 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축구 동호인과 더불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축구 외에도 낚시와 바둑을 즐긴다는 서인호 회장은 부인 김금선씨(52세)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원광연 기자